

혈액투석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로 etanercept(Enbrel)을 사용한 사례 1례

울지대학교 울지병원 내과학교실

*백대현 · 권오성 · 허진욱 · 성수아 · 주영실 · 황영환

서론 : 류마티스 관절염(RA)의 치료에서 DMARDs는 질병의 활성도를 낮추고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Methotrexate(MTX)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DMARDs는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지만, 신부전 환자에서는 약력학의 변동 때문에 독성의 위험이 높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RA 환자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MTX는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골수억제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불응성의 RA에서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TNF α 억제제 중 etanercept가 신부전 환자에서 약력학적 특성이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과 비슷하다고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기존의 DMARDs치료에 반응이 없던 중증의 RA로 진단된 혈액투석 환자에서 통증 조절과 질병 활성도 억제를 위해서 etanercept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78세 남자가 심부전으로 입원 치료 중 다발성 관절통으로 의뢰되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 있었으며, 6년 전 당뇨병 진단 받고 이로 인한 신부전으로 1년 전부터 혈액 투석 시작하였다. 1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 있어 RA 진단으로 비스테로이드 성 진통소염제와 저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하였으나, 무릎 종창과 통증이 반복되어 celecoxib 400mg/일, sulfasalazine 1000mg/일, prednisolone 7.5mg/일 복용 중이었다. 의뢰 당시 양쪽 어깨, 팔꿈치, 손목 및 무릎의 다발성 통증과 종창을 호소하였다. 검사 결과 WBC: 8,890/ μ l Hb: 8.6mg/dl platelet: 257,000mg/dl ESR 120mm/hr, CRP 6.45mg/dl, anti-CCP Ab > 100IU/ml, RA factor 77.1 IU/ml이었다. 스테로이드 증량과 azathioprine 추가 후에도 악화되는 불응성의 RA로 판단하여 MTX고려 하였으나, 골수 억제 등의 부작용 때문에 TNF α 억제제인 etanercept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tanercept (25mg 주 2회 피하주사) 사용 후 2주일만에 관절 통증, 종창 및 지속적인 염증으로 교정되지 않던 빈혈 호전되고, CRP 0.44mg/dl 감소되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Bisphosphonate associated osteomyelitis 1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진영 · 김용철 · 권혁민 · 이현정 · 신석준 · 송호철 · 최의진 · 방병기

서론 : Bisphosphonate는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에 의한 하악골 골괴사증 및 골수염에 대한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발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bisphosphonate가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뼈흡수를 감소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례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암환자와 연관되었었고, 현재까지 말기신부전 환자는 1예만 보고되었다. **증례 :** 74세 여자환자가 좌측 하악골의 통증과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5년전부터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시행 받고 있었으며, 10개월 전부터 신성 대사성골질환으로 bisphosphonate를 경구 복용하고 있었다. 내원 당시 구강내 하악골이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에 화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었다. 안면골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과 골스캔에서 좌측 하악골 골수염과 다발성 농양이 확인되었다. 혈중 intact PTH는 12 pg/mL로 감소되어 있었다. Bisphosphonate를 중단하고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며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환자는 패혈증성 쇼크로 진행하여 7병일째 사망하였다. **고찰 :**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bisphosphonate는 신성 대사성골질환에 의한 통증경감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제이다. 본 증례는 iPTH가 억제되어 골형성이 감소된 상태에서 bisphosphonate를 사용하여 골수염발생이 가속화 되고, 염증의 진행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들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bisphosphonate에 의한 하악골 골수염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